대림 제2주일(2019년 12월 8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요즘 대림 시기 동안 미사 전례에 대한 특별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 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분의 생애를 기억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사 중에 모시는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사는 초대 교회 사도들로부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요 정점입니다.

사제가 미사 중에 봉헌된 빵과 포도주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성령의 힘을 청하면서,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 빵과 포도주 위에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실체 변화’ ‘Transubstanti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믿는 것이 가톨릭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후에, 사제는 ‘신앙의 신비여’를 노래합니다.

이 실체 변화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신자들은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죠. 거룩한 신비가 일어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시도다’를 노래 하는 겁니다.

성체 변화에 대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미사 중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빵과 포도주의 성분 분석해 본 결과, 빵은 인간의 심장 근육의 살점이었고, 포도주는 인간 AB형의 혈액이었음이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사 때 여러분이 모시는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미사는 희생과 사랑의 제사입니다. 미사 중에, 포도주를 축성하기 전에 사제가 포도주에 물을 약간 따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포도주에 물 한방울을 타면서 사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천상 제사에 우리 인간도 함께 참여하게 해 달라는 기도죠.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노력과 땀과 희생이 합해지면서 이 성찬이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찬이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주일 미사에 꼭 나오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댓가로 번 돈을 제단에 바치는 헌금도 우리의 노력과 땀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가 봉사, 전례 봉사, 안내 봉사 등등 다 우리의 노력과 땀을 봉헌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이런 희생과 노력들이 모여서 이 미사가 가장 합당하고 거룩한 미사가 되는 것입니다.

미사 중에, 제대 위를 잘 보시면, 평화의 인사를 나눈 후에, 예수님과 몸과 피를 받아 모시기 직전에, 사제가 빵을 조금 떼어 내어서, 포도주에 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혈을 받아 모실 때 보시면, 성작에 작은 빵 조각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제가 예수님의 몸을 약간 떼어서, 피에 섞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가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최후의 만찬 당시, 예수님의 유언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신비입니까! 웬만한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다 접으시고, 주일 미사에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순간입니다.

미사는 집전하는 사제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항상 거룩하고 완전한 천상의 제사가 됩니다. 사제가 손을 씻는 장면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하기 바로 전입니다. 손을 씻으면서 사제는 혼자 기도합니다.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손을 씻는 예식은 유다인들의 정결 예식에서 유래한 것이죠. 유다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분명 손을 씻으셨습니다. 그 전통이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손을 씻는 예식은 정화의 예식입니다.

사제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인간인 사제가 드리는 이 성찬의 전례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사제도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별 볼일 없어 보여도,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성찬이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허물 많은 인간인 사제가 거행하는 이 성찬이 진짜 거룩하고 깨끗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사의 ‘사효성’ ‘ex opere operato’라고 합니다.

사제가 강론도 형편없고, 매일 골프치고 놀기만 하더라고, 그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는 그래도 진짜 미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꼴보기 싫다고, 보기 싫은 신자가 있다고 해서 미사에 오고 안오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인간적인 이유나 사정 때문에 냉담하거나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넘치는 하느님의 은총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사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고, 사도들이 직접 전해 준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 다녔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 분이 진짜 구세주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었지만,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그 분이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미처 깨닫지 못했었죠. 그저 위대한 스승이려니 하고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믿음과 희망을 다 잃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그 분이 부활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 하나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 날 밤에 함께 먹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 장면을 기억해 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건네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말씀을 기억해낸 사도들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최후의 만찬을 직접 재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제직을 받았었죠. 어느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마태 16:13-20)”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가 수장이 되면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간주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67년경에 죽고 나서, 그 후계자로 제 2대 교황은 리노 성인이 선출됩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대 교황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 266대 교황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베드로 사도가 직접 처음으로 집전하고 재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사제직을 전수 받아서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최후의 만찬을 집전하게 되죠. 이렇게 전해진 미사가 지금은 전세계 곳곳에서 한 순간도 빠짐없이 행해지는 미사가 되었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직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에게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후계자들을 통해서 지금의 사제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제가 거행하는 이 미사는, 그리스도로 부터 시작되어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성령이 작용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룩한 은총의 순간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 직접 미사를 거행할때, 미사는 성령의 힘과 작용이 완전히 살아있는 미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진짜 있기나 한 것인가요? 저는 도무지 성령의 기적은 안 믿어요. 성령은 제 스타일이 아니예요!”

사도 행전 제 2장에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오순절날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립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으로 가득차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데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초대 사도들의 공동체는 성령의 작용과 힘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찬양 미사를 합니다. 지난 달 찬양 미사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기쁨에 넘친, 정말 은총 가득한 미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체리힐 성당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미사를 한 적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찬양 미사나 성령 미사는 제 스타일 아니예요. 개신교 분위기 흉내내는 거 같고. 우리 가톨릭은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가톨릭 분위기가 맞아요.” 무식이 탄로나는 말입니다.

성령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는 개신교가 생기기 이미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사도 행전에서 전해지는데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셨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 다녔던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대 공동체는 성령이 가득차서, 기쁨과 행복이 넘쳤고 신바람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쁨에 넘쳐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께 경배와 찬미를 드렸던 살아있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안수하고 치유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성령에 감화를 받은 신자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다고 사도 행전은 전합니다.

그럼, 그렇게 성령이 가득차서, 기쁨에 넘쳐 기도하고 찬양했던 우리 가톨릭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를 암흑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중세때 교회는 정치 권력과 손잡게 되고, 부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성직 매매, 즉 사제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현상도 생기고, 죄를 용서 받았다는 증명서인 ‘면죄부’를 돈을 받고 발매하기까지 합니다. 주교나 교황도 권력과 부와 결합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영성과 기도를 바탕으로 하는 성령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것들만 강조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성령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 성령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성령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단죄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마녀 사냥’이었죠.

이렇게 중세 교회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성령의 은총이 사라져 버리고, 형식과 위선만 강조한 교회 전례가 가톨릭 전례에 남게 됩니다. 타락에 빠진 중세 교회를 개혁하려 했던 것이 16세기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죠. 이때 생긴 새로운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으로 가톨릭 교회에 개혁과 쇄신의 바람이 붑니다. 초대 교회의 복음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성령의 이끄심에 인도되는 교회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성령 쇄신 운동’입니다.

성령 쇄신 운동은 교황청에서 그리고 주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준된 신심 운동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현대 가톨릭 교회가 살아남을 길은 성령의 현존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감도에 영감을 받는 교회로 쇄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실체 변화도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참례하는 이 미사는, 성부이신 하느님의 은총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작용이 함께 어루어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는 인류 구원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대부분 매주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들이 미사에 와서 앉는 그 자리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이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그대로 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굉장히 큽니다. ‘나 하나 그냥 오늘 미사에 빠져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앞에서 바라보면, 그 빈자리는 정말 커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빈자리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자리, 절대 빈자리로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미사때 여러분들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시면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인 이 공동체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받는 은총이 어마어마 하게 큽니다. 이 미사는 인간 구원의 절정의 순간이고, 가톨릭 신자 생활의 핵심이요 정점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받는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구원이 은총을 빠짐없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